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알 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미사 재개 지침
 - 재개일 : 8월 9일 ~ 당분간
 - 참례 가능 신자 : 본당 신자, 공간별 10%
 - 미사 후 성체 분배 없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다음 주(8월 29일)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가톨릭은 어떤 종교인가?

- 가톨릭은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한 종교가 아니다.
- 가톨릭은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셨다.
- 가톨릭은 하느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 겸손과 사랑으로 하느님을 섬기라 초대한다.
- 가톨릭은 세상을 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도록 가르친다.
- 이렇게 살면 인간은 성숙한 인간이 되어 인생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 고3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

- 접수기간 : 8월 15일 ~ 8월 22일
- 접 수 : 윤영내 아네스 010-7900-3096
(낮에는 문자만 가능)
- 수험생 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도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08/29)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3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8월11일 ~ 08월17일)

● 거리두기 4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및 안내 사항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8/22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08/29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교 무 금 6,213,000원

• 주일헌금 3,415,100원

• 감사헌금
 김명순10만원 김태훈 6만원 정도선10만원
 신종구 5만원 김숙경 5만원 김용환10만원
 최은미10만원 이은용10만원
 12구역 5반 115천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08/22	손진희	하재민	도현만	장익근	구민서
08/29	이인옥	심재순	신종구	김덕영	정연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9:00
08/22	최석준	김인기	이성일	이운영	김영배	박용환
08/29	최승일	박승환	장인홍	최석준	김인기	박형순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버려진 이들

63. 예수님께서서는 강도들을 만나 두들겨 맞고 다친 채 길가에 쓰러진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곁을 여러 사람이 지나쳐 가 버릴 뿐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속에 공동선에 대한 사랑은 지니지 못하였습니다. 다친 사람을 돕거나, 적어도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몇 분의 시간마저도 허비하지 않으려던 이들입니다. 한 사람이 멈추어 서고 다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몸소 돌보아줍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다친 사람을 위하여 씁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는 한 가지를 다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곧 자기 시간을 다친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필요나 약속이나 바람에 따라 그날 하려는 계획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다친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 시간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64. 여러분은 누구와 동일시하십니까? 이 질문은 어려운 것이지만 직접적이고 결정적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와 닮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 특히 약자에 대한 무관심의 장벽을 치려는 유혹을 인식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많은 면에서 성장을 이루었지만, 발전된 우리 사회 안의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을 동반하고 돌보며 지원하는 데에는 여전히 까막눈입니다. 그러한 약자들의 상황이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눈길을 돌리고 옆을 스쳐 지나가며 그 상황을 무시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65. 어떤 이가 거리에서 공격당해도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본 체 급히 지나갑니다. 가끔 사람들은 누군가를 차로 치고서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은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할 뿐, 자신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이 교묘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어쩌면 더 정교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일반화된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필요에만 매우 사로잡혀 있기에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번거롭게 여깁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병든 사회의 징후들입니다. 고통에 등을 돌리면서 번영을 추구하려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66.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봅시다. 이 비유는 저마다 조국과 전 세계의 시민이자 새로운 사회의 유대를 건설하는 사람으로서 소명을 되살리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는 우리 존재의 근본법으로 새겨져 있는 것임에도 언제나 새로운 요청입니다. 사회는 공동선의 추구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고, 이 목적에서 출발하여 그 정치적 사회적 질서, 관계의 구조, 인간적인 계획을 언제나 재편해야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몸짓으로 다음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는 다른 이들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은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만남의 시간입니다.”